“지장보살 원력으로 교정교화 앞장”

교정인불자연합회 하계수련회



전국의 교도소와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정교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정인불자들이 다시 한 번 포교 원력을 다졌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류성환)는 6월 11~12일 김제 금산사에서 ‘제20차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수련회 입재식에는 류성현 회장을 비롯해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 스님,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전주교도소교정협의회장 승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전국의 교정인불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예불, 성우 스님의 내비둬 콘서트, 화합과 소통한마당, 지회 신행사례 발표로 첫날 일정을 소화한 교정인불자들은 다음날 새벽 예불에 이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계사로 미륵십선계 수계식을 봉행하고 승한 스님의 특강을 경청했다.

입재식에서 류성환 회장은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교정교화활동을 펼친 전주교도소 조만기, 우남일, 이수민, 안종희 불자 등에게는 각각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포교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에게는 연합회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름엔 산사서 호연지기 기르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여름 불교캠프 마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2016년 여름 청소년을 위한 제5회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를 7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지리산 법계사, 연곡사에서 개최한다.

‘지리산에 올라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산행을 통해 호연지기와 자신의 큰 꿈을 세우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사찰템플스테이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진행된다.

캠프는 광주에서 출발해 지리산 법계사(1박), 천왕봉, 장터목산장, 거림골, 연곡사(1박) 일정으로 이어진다. 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 ‘제21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부안 내소사 일원에서 개최한다.

8월 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생태학교는 능가산 내소사 숲 체험, 에코트레킹, 명상프로그램, 공동체놀이 등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범 불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

광산구청 불자회 13주년 기념법회



광주 광산구청 불자회(회장 김승현)는 6월 8일 광주 길상사 북카페 고월당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광산구청 불자회는 지난 2003년 공무와 수행이 하나 되기를 서원하며 창립해 한 때 90여 명이 활동하는 대규모 신행단체였으나, 최근 정년퇴직 및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 현재 30여 명이 활동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최근 침체된 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 법회 참여를 결의했다.

김승현 회장은 “공직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히 젊은 불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모범 불자회가 되도록 회원들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법회는 도제 스님의 지도에 따라 명상 시간과 걷기 명상이 진행됐다. 법회 후 회원들은 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방생법회, 참선수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회원을 모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눔이 곧 풍족한 삶 누리게 합니다”

진안 마이산 탑사·쌍봉사, 어르신 위한 문화봉사 펼쳐

1천여 명 참여한 대규모 봉사
문화공연·체험행사 펼쳐져
각종 생활용품 관내에 전달
“사회 발전 위해 꾸준히 활동”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주최한 문화 및 전문 봉사활동 행사에서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공양을 배식하고 있다.

전북지역 불교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전문 봉사활동을 펼쳤다.

진안 마이산 탑사와 진안 쌍봉사는 6월 14일 진안 문예체육관에서 ‘마이산 탑사·쌍봉사·진안 원불교 교당과 함께하는 문화 및 전문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진안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800여 명과 자원봉사자 200여 명 등 약 10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행사에는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 정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항로 진안군수, 이한기 진안군의장, 김훈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장, 김용진 진안자원봉사센터장을 등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진성 스님은 “다른 이를 위한 나눔을 습관으로 삼으면 자연스레 모든 이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며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펼치는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어르신들을 잘 봉양하는 모습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들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경로효친사상이기도 하다”며 “이는 우리가 후손을 위해 남겨야할 고귀한 유산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마이산 탑사 전주분원 실상밴드의 난타공연과 쌍봉사 보경 스님의 노래 공연, 혜인정사 진송 스님과 실상밴드의 색소폰 연주, 원광어린이집 아동들의 율동, 밸리댄스,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가요를 구성지게 불러 수많은 어르신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봉사단의 미니연꽃 만들기 체험부스를 비롯해 홍삼인절미 만들기, 홍삼막걸리칵테일 시음, 쑥뜸체험, 네일아트, 부채공예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점심식사로 삼계탕이 제공됐으며, 떡과 음료, 한과 등의 다과상도 함께 제공됐다. 또 주최 측은 진안 관내 11개 읍면을 통해 화장지 등 각종 생활용품과 간식을 선물로 전달했다.

한편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들과 연계해 자비의 연탄나눔, 김장김치 나누기, 자비의 쌀 나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 최근 창립된 마하연 승가회 봉사단체인 ‘우리나눔’을 통해 9월 중 전북지역의 각 시군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용성 스님 가르침 대중포교로 회향”

장수 죽림정사, 용성조사 탄신 152주년 대재



전북 장수 죽림정사는 6월 12일 경내 용성교육관에서 ‘용성진종조사 탄생 제152회 대재 및 역대전등 제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자 3·1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명인 백용성조사의 탄신을 기리는 법석이 용성조사의 탄생성지에서 열렸다.

전북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는 6월 12일 경내 용성교육관에서 ‘용성진종조사 탄생 제152회 대재 및 역대전등 제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대원 스님, 前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원두 스님, 정토회 회주 법륜 스님을 비롯해 정토회 상임지도법사 유수 스님, 한 수승행 세계불교청소년교화 후원회장, 신봉수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상무이사, 정토회원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용성조사 행장소개, 축사, 환영사, 기념법문, 온 겨레의 노래 제창, 정근 희사, 법문 및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앞서 대중은 7여래불, 70전등조사, 7대사, 48선지식, 56조사 등 188위에 대한 봉찬대재를 봉행했다.

도문 스님은 기념법문을 통해 “용성스님은 간절하고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깨우쳐 수행 정진의 마음을 견고히 하면서 대도 대각인 보리심을 이루라고 가르쳤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진하고 대중포교로 회향하자”고 당부했다.

용성조사는 1864년 전북 장수 번암면 죽림리에서 태어나 남원 덕밀암에서 출가했다. 한국 현대불교 기반을 닦은 선지식으로 종로 한복판에 대각사를 창건하고 경전을 번역하는 등 불교를 도심으로 내려오게 해 생활불교, 바른 불교의 기풍을 마련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계 대표로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우리 민족을 독립케 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라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1886년 경북 구미 아도모례원에서 오도하고 1940년 2월 24일 세수 77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연음식문화원, 나눔 먹거리 한마당

자연음식문화원(원장 유지원)은 6월 11일 자연음식문화원체험관에서 전주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해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치유와 나눔의 먹거리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아동센터 어린이와 가족들은 친환경 자연음식 조리법을 체험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설민자 전주지역아동센터장은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함께 만들어 맛있게 먹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특히 주말에 아이들과 즐거운 체험을 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음식문화원은 2012년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급에 나서 자연사찰음식, 친환경 건강 자연음식 등의 체험전을 실시해오고 있다. 자연음식문화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 희망드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치유와 나눔의 먹거리 한마당 체험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 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귀장술,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德厚(덕후) 합장 010-5658-2657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